

[울산소식]동구, 기해년 정월대보름 행사 19일 개최 등

박일호 기자 | piho@newsis.com

등록 2019-02-13 15:43:39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동구, 기해년 정월대보름 행사 19일 개최

울산시 동구는 기해년 첫 보름달이 뜨는 오는 19일 일산해수욕장과 주전쉼터공원 2곳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동구문화원 주관으로 1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기원제례와 길놀이, 식전공연, 개회식, 달집살이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식전공연 행사를 2시간 동안 진행하며, 모듬북과 정월대보름 노래, 드리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부대 행사로는 소원지 쓰기과 부럼 나눠주기, 전통놀이 체험 등이 마련돼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주전심터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주전청년회 주관으로 오후 4시부터 식전공연, 개회식, 기원제, 선상퍼레이드, 달집태우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주전동 정월대보름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떡국 등 먹거리가 제공된다.

◇동구, 화재 피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에게 성금 전달

울산시 동구는 설 연휴 직전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을 위해 13일 성금을 기탁했다.

정천석 구청장은 이날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 동구청 직원들과 함께 모은 성금 334만원을 상인 대표에게 전달했다.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성금 모금에는 동구청 32개 부서 직원 500여명이 빠짐없이 참여했다.

pih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